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집착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놓아버려야 하니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강하게 집착하거나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재산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을 개별적으로 밀바닥까지 들어가 조사해보십시오.

신기루 같이 없던가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집착은 사라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이상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지고 고요해집니다.

반면 당신이 강한 집착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현생과 후생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강한 미련을 가지고 죽는다면 탐욕에 의해 고통받는 아귀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성자나 수행자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옷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누구보다도 만족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행자는 단 한순간마저도 낭비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가 어찌 세속적인 일로 삶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도농 사찰·사회 양극화 해법 찾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신년 연구계획 발표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리타이어 푸어 등 3푸어 시대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도농 사찰 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찰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사진)는 2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구사업 계획을 밝혔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올해 정책·불교사회·기초연구·연구기반 구축 등 4가지 사업분야에서 총 18개 세부 연구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와 사찰의 양극화 현상을 다룬 연구 주제다. 사회 양극화 연구는 지난해 양극화 보고서 연장사업으로 3푸어 시대를 조망하고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진단한다. 연구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책연구 분야의 중단 기초 재정연구는 극심해지고 있는 도농 사찰간 양극화 현상과 재정 지원 방안, 전국 사찰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8월 경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농촌사찰에 대해 "농촌의 노령화가 가파르게 전

개됨에 따라 산중, 농촌 사찰들의 붕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회 동참자가 현저히 줄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신교 역시 농촌 교회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에 대

정책연구 부문

수행지침·법제직무 등 연구

호국불교 역사 조사사업

사회연구 부문

3POOR 시대 조망해

불교 시대적 역할 모색

한 연구 조사가 이뤄졌지만, 불교계는 대안 연구가 전무하다"며 "중앙종단과 교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연구소는 △법제직무제도 △다문화 연구 △대국민여론조사 △



한국불교진단 과제 △법회현황 조사 △정부 재정현황 조사 △수행 지침 연구 △호국 불교 연구 등의 연구사업들을 추진한다.

승려의 신분 보장과 적재적소의 소임 배치를 위한 법제직무제도 수립 연구사업은 지난해 중단 돼신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승가 전통 안에서의 직무제도와 관리 방안, 정부·타종교 사례 등 제도 수립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좌담회 등을 거쳐 관련 연구보고서를 6월 이전 결사추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문화 연구는 불교국가 이주민의 현황과 과제를 수행하며, 법회 현황 조사를 통

해서는 신도들의 법회 및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폭 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외 보조금 3억 원이 지원되는 호국불교 연구는 남북한 산성, 승장, 호국불교사찰 연구, 기초자료집 발간 등 연구사업과 더불어 서산대사 제향의례(4월), 남북 불교 공동 북한 보현사 서산대사 차례제(10월) 등의 행사들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도 불교사회연구소는 대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한국불교 대외적 이미지 현황과 국민들의 요구를 진단하며, 국제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기반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 3일에는 개원 2주년을 맞아 '종교, 사회 통합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자로 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이 나서며 토론자로 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이윤삼 목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그간 종단에는 정책 연구에 대한 컨트론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이유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사업들을 발굴해 종단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재가 이사 추천은 고유 권한”

종관위, 14일 긴급회의… “동창회, 월권행위 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 이하 종관위)가 동국대 승·재가 이사 추천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종관위는 2월 14일 제87차 회의를 열고 최근 동국대 총동창회가 문제 제기한 이사회 정관 개정 문제의 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종관위원들은 자의적으로 종법과 학교 정관을 해석해 물의를 빚은 동국대 총동창회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위원 덕문 스님은 “개방 이사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사학법 조항에 맞춰 선출됐다. 사학법 위반 사실은 없다”며 “종립학교관리법은 동국대 이사회 정관보다 상위법이다. 불교의 삼보정재가 들어간 학교를 건학이념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위원 성행 스님은 “총동창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해 분명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김영순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종관위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된 인사들을 동국대 이사회가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 오심 스님은 “상위법인 관리위원회 법 7조 4항에는 승·재가 이사 모두 종관

법인 사무처에 정관 개정 지시

이사 후보 2인 최종안 확인

위에서 복수 추천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부결이 됐으면 차기 이사회에서 재차 상정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날 종관위는 위원회와 총회 동의를 거쳐 추천한 김선근, 김영순 이사 후보가 종단의 최종안임을 재결의했으며, 동국대 법인사무처와 이사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총동창회에 대해서는 종관위와 종

단의 위상에 손상을 입힌 만큼 관련자의 참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과 정관 개정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을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위원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종관위는 결의문을 통해 “위원회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와 총회 동의를 거친 동국대 이사 후보 2인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이사로 판단했다. 총동창회는 종단과 위원회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종관위는 총동창회에게는 “임원선임 관여와 정관개정 반대 서명 독려 행위는 종단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동시 총동창회의 월권행위이다. 이에 대한 참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국대 정관 어디에도 총동창회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없다”며 “동국대 설립 주체인 종단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 후보에 대해 동창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종일 기자

진각종 봉축 준비 시작

4월중 연회단 본격 구성

진각종이 부처님오신날을 3개월 여 앞두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와 종무원들로 구성된 봉축준비단은 2월 13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잠업등 작업장에서 잠업등 보수 및 정비를 시작했다. 올해 봉축행사에 사용될 장엄등과 소품등은 총 200여 점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대 장학금 수여

금강대 신입생 장학금 수여식이 2월 27일 오전 11시 단양 구인사에서 거행된다. 이날 신입생 165명 전원에게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2013학년도 1학기 원강불교장학금이 지급된다. 수여식에 서 천태종 도용 종정예하가 수석임학자, 수능성적우수임학자, 남녀학생 대표 각 1명 등 신입생 대표 10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김주일 기자

봉

《 禪文化研究 》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선정

성원해주신 불교학자 및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 7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축

※ 제 7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 1) 공모주제
 - 불교학 (선학·교학)
 - 불교사·응용불교·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불교사회복지
 -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 제외)
- 3) 선정규모 및 특전
 - 우수상(1명) 500만원, 학술상(3명) 1인당 30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선문화연구》에 게재
- 4) 제출서류(우편 혹은 전자메일)
 -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 (2)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 1부
 - (3) 연구실적목록 상에 기입된 실적을 각 1부
 - (4) 이력서(주소·전화번호·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연구기대효과 포함]
- 5) 제출기한 및 발표
 - (1) 제출기한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4일(월) 오후 5시까지
 - (2) 선정 및 통보 : 2013년 3월 10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 (3) 논문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13년 6월 초 (예정)
 -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13년 6월
- 6) 참고사항
 - 선정자는 2013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 월례발표회 원고 모집

- 1) 발표주제
 -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3)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 (4) 한국근현대불교사상 및 문화(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 등)
- 2) 발표문 분량 : A4 7 ~ 8매
- 3) 발표 자격 : 박사과정 이상
- 4) 발표신청기간 : 연중수시
- 5) 특전
 - (1) 소정의 발표비 지급
 - (2) 심사 후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 (3) 등재지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서류 제출처 문의 및

한 국 불 교 선 리 연 구 원 장

(재) 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 팩스 02)734-9622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홈페이지 : http://www.seonhakwon.or.kr/seonli (전자메일 : seonhakwon@daum.net)